

서 문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백서가 발표되고 2년이 지난 2003년 5월, 법령의 초안이 공개되자 전세계적인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REACH는 기존의 약 40개 화학물질 관리법령을 통합하여 단일 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당국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생산자가 화학물질의 무해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관리정책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REACH는 화학물질 사용량과 유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그 핵심은 'No data, no market.'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1톤 이상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유럽 화학물질 관리청(ECA : European Chemical Agency)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며, 등록이 되지 않은 물질은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REACH는 현재 EU 집행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금년에 새로운 EU 회원국 가입이 예정되어 있어,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6월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관련 기업과 환경단체의 입장 차이가 커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어 법 시행은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화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와 규제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이므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법령집을 번역하여 책자로 발간하오니 사전 대응하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1.5